

# 토스증권, 300만 계좌 돌파... '주식 1주 선물받기' 통했다

‘주식 1주 선물받기’ 2차례 진행 이벤트 기간 신규계좌 폭발 증가  
고객 주거례 증권사 교체는 미지수 장기확보 위해 장기서비스 고도화

토스증권의 신규 계좌 개설수가 300만좌를 넘어섰다. 주식 선물받기 이벤트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2030세대들에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토스증권은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로 유명한 비바리퍼블리카의 자회사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증권 외에도 토스페이먼츠, 토스인슈어런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제3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토스증권은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번째로 탄생한 핀테크 증권사다.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이사는 2일 “이번 300만좌 돌파는 ‘밀레니얼 세대와 초보 투자자에게 새로운 모바일 증권사’가 되겠다는 회사의 약속에 고객이 신뢰를 보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

**토스증권, 300만 계좌 달성, MTS 사용 편의성 UP!**



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MTS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MTS UX 업그레이드

토스증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정식 개시한 지 3달 만에 토스증권의 신규 계좌 개설 수는 300만개를 넘겼다. 토스증권은 지난 4월 ‘주식 1주 선물받기’, 5월 ‘주식 선물받기 시즌2’로 총 두차례에 걸쳐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이 기간 신규 계좌 개설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식 선물받기 시즌2 이벤트의 경우 신규 계좌 개설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약 70만명의 신규 고객이 유입됐다. 주식 선물받기는 토스증권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 주식 30개 종목 중 1주를 랜덤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다.

또 토스증권이 랜덤 지급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높다는 입소문도 신규 투자자의 유입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른바 ‘토스매매법’이라며, 토스 이벤트로 등장한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는 농담까지 등장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주주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토스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이벤트다. 주가 상승을 특별히 기대하고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초보투자자도 잘 알고 친숙할 만한 종목 ▲재무제표(매출·영업이익)가 우수한 기업 ▲차트 흐름 상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시가총액 일정 수준 이상 ▲거래량이 너무 작지

나, 권리 발생이 예정된 종목은 불포함 등 일정한 기준을 통해 종목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토스증권은 MTS 출범 당시 기존 증권사 MTS에서 볼 수 있는 봉차트(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등을 과감하게 빼 버리는 등 복잡한 정보를 없애 주목을 받았다. 주린이(주식투자자+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자환경(UI)과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하는 등 한눈에 보기 쉬운 MTS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토스증권은 고객 의견을 반영해 봉차트를 새로 추가했다. 기존 UX를 그대로 유지하되 변환 버튼을 눌러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수익비율(PER), 순자산비율(PBR) 등 대표적인 지표들도 보강됐다.

◆장기고객 확보가 관건

한편 주식 선물받기 이벤트를 통해 고객수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장기고객 확보가 관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존 주식 투자자의 경우 주식

선물받기 이벤트를 계기로 주거례 증권사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토스증권 측은 고정된 마케팅 비용 아래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선전비 대비 효율적인 이벤트라는 입장이다. 또 실제로 토스증권의 경우 0.015%의 주식 매매 수수료도 부과하고 있다. 기존 증권사들이 수수료 면제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것과 달리 수수료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토스증권은 새로 신규 유입 고객들이 장기고객으로 전환되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장 주요 소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주요 이슈’와 투자 교육용 콘텐츠인 ‘오늘의 발견’ 등 차별화된 투자 콘텐츠를 추가했다. 향후 ‘커뮤니티 기능’ 도입도 예정돼 있다. 실제 주주와 관심 단계의 사용자를 구분해 왜곡된 정보를 방지하고, 사용자 간 투자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해 투자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목동 재건축 시동... 거래절벽에도 호가 ↑

市, 규제완화·안전진단 절차 개시  
거래절벽에 매물품귀까지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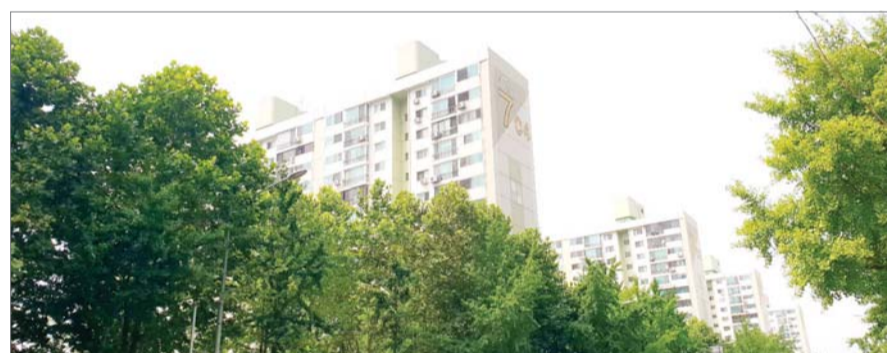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가 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달이 지나면서 거래절벽은 현실화 됐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호가는 여전히 상승세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지는 전용 47㎡가 13억7000만원에 매물이 있다.

목동 아파트 7단지지는 전용 59㎡가 지난 4월 실거래된 가격보다 3억원 가량 오른 19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8단지지는 전용 71㎡가 16억8000만원에 매물이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 4월 1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각 단지별로 매물이 한 개씩 밖에 없을 만큼 거래절벽과 매물품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호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들은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목동 6단지지는 지난해 6월 2차 정밀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최초로 재건축사업 추진을 확정지었다. 특히 11개 단지(1·2·3·4·5·8·7·



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달이 지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호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전경. /정연우 기자

10·12·13·14단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 2차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안전진단 절차 개시를 약속한 만큼 안전진단이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9단지과 11단지도 안전진단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목동9단지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성산신영의 1차 점수 53.88점보다 더 낮은 점수인 53.32점을 받았지만,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58.55점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11단지지는 1차에서 51.87점을 받았지만, 지난 3월 30일 2차에서 6.91점이 상향돼 58.78점을 받으며 최종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도 임박했다는 분위기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결정고시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전체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가구수 등 토지이용계획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양천구청이 재건축을 염두에 둔 새로운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난 2019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서울시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목동뿐만 아니라 수 년 간 답보상태인 압구정·여의도 등 서울 시내 아파트지구에 대한 계획이 중단된 바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 DL이앤씨, ESG 분야 친환경 사업 정조준

IMM인베스트먼트와 ESG 공동투자 200억 출자, 中 수처리社 지분 확보

DL이앤씨는 IMM인베스트먼트와 ESG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수처리 플랫폼 선도 기업인 유나이티드 워터(UW)에 대한 지분 투자에 나섰다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DL이앤씨는 IMM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에 200억원을 출자하고, SPC가 인수금융을 추가 조달해 지난달 28일 UW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총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게 됐다.

DL이앤씨는 이번 투자로 ESG 분야에서 신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한편,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수자원 확보 및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W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의 상

수 및 하수처리시장에서 중국정부 및 공기업 지분이 없는 순수 민간기업이다. UW는 중국 9개성과 인접 국가에 위치한 23개 사업장에서 상수 공급과 하수처리 및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내 수처리 시장의 성장과 인접국가로의 적극적인 확장을 통해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올해 안에 상당히 주식시장 상장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DL이앤씨는 특히 UW가 중국 내에서 폭넓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확장 능력과 지방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활용해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시아와 러시아의 수자원 인프라 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DL이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수처리 기술력과 사업수행 경험을 활용할 경우 UW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여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전략이다.

/정연우 기자

## ‘비대면 IRP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대신증, 내달 말까지 9주간 진행

대신증권이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음료 기프티콘, 축하금 등 경품을 제공하는 ‘여유로운 노후생활, IRP로 준비하기’

이벤트를 7월 말까지 9주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여유로운 노후생활, IRP로 준비하기’ 이벤트는 IRP 가입을 고민하는 고객에게 비대면 IRP 개설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다. 이 이벤트는 I

RP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와 IRP 신규 개설하기 이벤트로 나눠 진행된다.

IRP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IRP에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입금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IRP 신규 개설하기는 신규로 비대면 IRP 개설 고객 모두에게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박미경 기자

##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서비스 업그레이드

美 나스닥 베이직 사용계약 체결  
실시간 시세 무료제공 등 서비스

신한금융투자는 모든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미국주식 실시간 시세 무료 제공 ▲프리마켓 주문시간 확대 ▲스탁콘 종류 확대 등 해외주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나스닥 거래소와의 나스닥 베이직(NASDAQ Basic)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고객은 나스닥 산하 4개의 거래소에서 취급된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AMEX에 상장된 종목들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미국주식 프리마켓 주문시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오후 9시부터 정규장 개시 전(오후 10시 30분, 서머타임 해제시 오후 11시 30분)까지 프리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었으나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한국시간 오후 5시(서머타임 해제시 오후 6시)부터 정규장 개시 전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상품권인 ‘스탁콘’ 종류를 추가했다. 기존 4100원권, 1만2000원권, 2만5000원권, 3만원권에 더해 1만원권과 5만원권을 추가 판매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